

#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네트워크

남희은(고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강환세(부산대 사회복지 박사)

- I. 들어가며
- II.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
- III. 민·관 네트워크
- IV. 지역교회의 네트워크 사례
- V. 발전적 제언
- VI. 맺으며

## I. 들어가며

한국기독교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선교의 수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초창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데 있어서 동원된 새로운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였다(임종운 · 임구원, 2003). 조선 후기 시작된 개신교 선교는 그 시작부터가 사회복지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즉 빈민들과 버려진 자들을 상대로 한 고아원,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사업,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한 간접선교로 시작하였다. 그 당시 생존에 허덕이는 고달픈 삶에 희망을 주었고, 어두운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한 기독교는 사회의 완충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할 수 있다(김은수, 2002).

한국 사회복지의 전문적 발전은 한국전쟁이후 외원기관과 종교단체의 선교적 차원에서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회복지로 출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한국기독교에 있어서 지역주민간의 사회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장벽을 허물어 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서비스의 제공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실천의 의지와

성경 가르침 요인이 동기가 되는 활동으로서, 신앙적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과 봉사와 자기희생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성경에는 한 구절 건너마다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 「친구를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큰 사랑이다. 이에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였고, 보다 근원적으로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선언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다(신현석, 2008).

즉, 기독교사회복지 패러다임은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이웃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서적 정의를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자 가치체계(김기원, 1998)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가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서비스로 발전한 데는 서구사회의 기독교적 가치관과 교리 실천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과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 기독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혹은 단체의 약 60% 이상이 기독교 계통으로 알려지고 있다(강춘근, 2005). 그러나 사회복지사 중 기독교인이 60%를 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개신교 44%, 카톨릭교 17%) 이렇게 많은 기독교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해 왔지만, 일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종사자와 다른 차이점이나 그 독특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한편,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원조로 대변되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넘기면서 권위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등장한 시민사회가 종교단체가 맡아오던 사회복지 사업을 나누어지게 되었다(김은수, 2002). 현대사회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장에 발맞추어 국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진보적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해오던 소규모 게릴라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전환기와 다원화 시대를 맞은 한국 기독교계는 복지선교의 구체적인 실천행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방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타의 종교조직들 중 한국(개신교)교회는 역사적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가 지나친 면이 없진 않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대중의 질타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적 결실의 부족에 따른 이미지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다. 대중 속에서 소멸되어가는 교회의 영향력을 되살리고자 모색되고 있는 여러 방안들 중 하나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윤성호, 2008).

특히 현대사회는 통합, 연계가 트렌드이자 시대적 요청으로 교회의 지역을 향한 복지사업

도 개별적인 한 교회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연계하여 단체적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교회간의 연계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주체로 인식되어 민·관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할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한 지역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현재 한국교회는 내·외부적으로 지역복지적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있어 교회의 연합사례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어서 지역사회 복지차원의 민·관 네트워크의 전제조건과 활성화 방안과 교회연합의 지역복지사업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

### 1. 지역사회복지의 의미

지역사회(community)란 용어의 사용은 서구에서 14세기부터 영어권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원래 의미는 지위가 높은 상층계급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평범한 사람들’ 또는 ‘일반 시민’을 의미하였다. 16세기에는 ‘공통적 요소를 지닌 어떤 특성’을 의미하거나,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된 19세기 이후에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산업사회와 대비되는 전통사회의 지역성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유토피아적 방식의 집단생활을 의미하기도 하였다(오정수·류진석, 2004).

지역사회란 용어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①지리적 개념으로서 지역사회, ②집단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사회적 동질 지역으로서 지역사회, ③지리적 및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자연 지역으로서 지역사회 등으로 나누어진다(최일섭·류진석, 1996). 본 연구에서의 지역복지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직적·비조직적 노력은

---

1) 지역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 원리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인간관계의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트워크(network)의 활용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양한 욕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거대 조직 하나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 공급체계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수급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윤성호, 2008).

동서고금의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에 존재한다. 또 사회복지라는 일연속선상의 다른 극에 위치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 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 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참여를 역사적으로 서술한 논의는 더러 있었지만, 실증적인 자료분석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중 중요한 분석결과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 성규탁 외 3인(1991)이 수행한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는 여섯 가지 정도의 결과를 피력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내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사회봉사를 위해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회의 재정부족이 사회봉사활동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된다고 다수 목회자들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은 교회의 재정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교회 내 전체교인들의 사회봉사태도가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목회자들의 대다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회가 사회봉사를 계획함에 있어 외부와의 정보교환이나 사회사업전문인력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사회봉사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있다.

오래된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몇 가지 함의를 가져다주고 있다. 사회복지 내지는 사회봉사에 대한 교회 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의 상황은 성직자들 스스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획득하여 실질적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활동에의 적극적인 교회의 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윤성호, 2008).

## 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조직자원, 인적자원, 재정자원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직자원 관리의 비체계성

우리나라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가 적재적소의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빈번한 접촉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조직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직관리는 많은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교회시설과 각종 복지시설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역별, 계층별에 따라 지역편차가 많이 나타나 시설운영을 개방하는데 일정지역에 편중지원 될 수도 있고, 아울러 주변지역과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연계 활동이 곤란하며, 행정업무 체계도 일원화가 어렵고 교회 교단의 특성상 자기교회 위주의 시설운영으로 폐쇄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

둘째,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복지시설에 처음부터 대상자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보호한다든지 각 대상자의 특성과 성장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보호한다면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중시킨다. 특히 교회는 신앙적으로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한다는 중심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 내에 대상자 별로 그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교회내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이 부족하다.

### 2) 인적자원 관리의 비효율성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지만 그 시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교회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봉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선도적인 인식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비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자들에게 처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구호나 구빈의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에 자원하는 인력의 부족현상이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하더라도 대상자들에 대한 사랑과 소명의식,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나 시설종사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을 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인식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교회 내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식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한 열심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인식부족은 이러한 잠재적 자원들의 활용에 소극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 3) 재정자원 관리의 비현실성

한국교회들 가운데 재정지출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비율이 총지출가운데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이 사실이다. 1년 예산 중 교회재정을 자체운영 관리하는데만 비용지출이 많고 사회봉사비 지출이 적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한국 교회들 대부분은 교회성장을 목회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결국 대형 건물의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교회건물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지출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비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둘째, 교회의 대형화는 그에 따른 수많은 부속자재의 구입과, 교회건물의 유지 및 관리, 대형차량 운행 등 지출의 대형화를 동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도 교회로 하여금 자체운영 및 관리에만 급급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향한 넉넉한 봉사가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 3.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

### 1) 사회를 향한 선교로서의 복지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교회의 건물과 교회 구성원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적 의미와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가

진다. 교회는 종교적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신자(信者)들의 모임으로서 '예배'를 비롯한 친교(fellowship), 교육, 봉사 등을 수행한다. 특히 '봉사'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다리의 역할을 한다. 교회가 '모임'을 통해 예배와 교육과 친교를 행한다면, 또한 '흠어짐'을 통해 사회적 봉사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봉사(diakonia)를 통해 사회를 향한 선교를 구체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제사)를 실천하게 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에서 산 제사는 이웃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한다. 이웃 섬김을 통해 섬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며, 우리는 살아 있는 산 제물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곧 '이성적'(reasonable)이고, '분별 있는'(sensible) '합리적인'(logical) 예배이다.

후켄다이크(J. C. Hoekendijk)는 '흠어지는 교회'(diaspora)가 그 목표인 'shalom'(Shalom)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말씀선포(kerygma), 평안의 생동적인 움직임으로서 친교(koinonia), 평안의 겸허한 실제로서 봉사(diakonia)가 선교에 통합되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은 섬기는 디아코니아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구체화 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대한기독교서회, 1985).

## 2)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

교회는 사회 전체와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는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빛이 되어 밝게 하든지, 소금이 되어 짜게 하든지, 누룩이 되어 부풀게 하든지, 하여튼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소로서의 사명을 가지며 이것은 예수가 가르쳐준 교회의 사회적 기능이다.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목적과 제도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종교의 초월적 목적은 제도의 기능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독교의 종교적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기능' 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기능' 이다. 사회적 기능은 주로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으나 넓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기능도 사회적 기능에 포함된다. 한편 심리적 기능은 개인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며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주고 긴장을 해소시켜준다.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기능은 전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영향이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기능은 본래 개인들에게 작용하지만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공동체성과 교회로서 가지는 독자성을 모두 가진다. 교회는 독자적 원동력을 가지고 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사회를 통합하고 변혁시

킨다. 이러한 사회 발전의 기능은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 교회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협력자이다. 즉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치유하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예방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 통합의 한 방편으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위기에 빠진 개인을 위기로부터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념보다는 실천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념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도 실천적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는 당시의 유대교적 전통인 이념적 가치 즉, 율법의 상대성을 지적하면서 실천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종교에 있어서 인간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천적 가치는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종교의 기능이다. 이러한 종교의 실천적 기능은 인간의 기본 욕구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나 종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대한기독교서회, 1985).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욕구에 대한 종교의 기능은 결국 종교의 사회적 기능, 즉 사회복지적 기능과 연결이 된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과 그 실천행위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도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

### 3) 인간성 회복과 삶의 복리 증진

기독교 사회복지가 그 사상적 근거를 인간의 영혼까지 포괄하는 종교적인 원인에서 찾는다면 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 등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인간관에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 운영자들의 종교적 분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볼 때 구제,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다. 또한 '사회복지' 라는 말의 근대적 개념인 자선, 박애, 구빈 등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회적 행위가 주로 서구 기독교에 의해 실행되어 왔다. 이렇듯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관심과 개념을 가지고 왔다. 오늘날 사회복지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독교 사회복지도 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다. 교회의 사회복지 초기사업은 주로 구호적인 봉사에 머물렀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슬픈 자, 어렵게 된 자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에게 약간의 물질적 구호를 제공하는 자선적인 봉사(Charitative Dienst)가 대부분이었다. 그밖에도 난민 구제 사업, 피난민 구호 사업, 유치원, 청소년 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돕는 기관, 미혼모나 독신 여성



들, 윤락녀를 돕는 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갔다(이삼열, 1999). 교회가 사회를 구호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차츰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사회적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변혁시켜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산업 사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세기 중엽 이후였다. 산업화 이전의 봉건적인 농업 사회에서는 가난과 결핍의 원인을 운명이나 자연적 원인, 개인의 능력 등에서 보았으며 사회구조의 잘못에서 찾아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초기 자본주의의 시대에 이르러 저임금과 착취, 실업, 산업 재해 등으로 많은 산업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가난한 계층이 되어 가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기게 되자 사회구호나 개별적인 구제 활동으로는 가난과 질병,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의 봉사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복음(Social Gospel)운동이나, 종교 사회주의(Religious Socialism)운동, 혹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나오는 책임 사회(Responsible Society)운동이 교회의 봉사 활동을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사회복지선교로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선교는 인종차별 철폐운동이나 인권운동, 노동운동 같은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운동이자 기독교 사회복지의 목표다. 사회복지선교는 성문 밖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삶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with), 지역사회를 '위하여'(for) 일할 때 바람직한 사회복지선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르는 교회들을 위해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한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이들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4. 지역교회에 적용 가능한 사회복지실천모형

지역교회 자체 내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와 구성원의 인식과 교육의 정도, 리더십, 가용자원의 정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네트워크 정도에 따라 다른 전략이 구사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는 모형은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박창우, 2007).

첫째, 적극-대형 모형이다. 적극-대형 모형 교회는 교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복지성향과 충분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교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에서부터 후원 및 자원봉사,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사회복지사업 위탁,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형이다.

둘째, 적극-중형 모형이다. 적극-중형 모형 교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활동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는 모형이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거나 적극적인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을 병행하는 모형이다.

셋째, 적극-소형 모형이다. 적극-소형 모형 교회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주변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형이다.

넷째, 소극-중대형 모형이다. 소극-중대형 모형 교회는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복지성향을 적극적인 복지성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풍부한 복지자원을 통해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에 집중하는 모형이다.

다섯째, 소극-소형 모형이다. 소극-소형 모형 교회는 빈약한 복지자원과 소극적인 복지의 식으로 실질적인 교회복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 및 교인들을 위한 복지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모형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회 사회복지 실천모형

모형	적극-대형	적극-중형	적극-소형	소극-중대형	소극-소형
목표	사회문제해결, 지역의 복지욕구해소, 교회구성원 복지의식증진	지역의 복지욕구해소, 교회구성원 복지의식 증진	지역의 복지욕구해소, 교회구성원 복지의식 증진	교회구성원 복지의식 증진, 지역의 복지욕구해소	교회구성원 복지의식 증진
주체	사회복지전담부목사 혹은 유급 사회복지전문가	유급사회복지전문가 혹은 부목사+ 파트타임 사회복지사	담임목사+ 파트타임 사회복지사	부목사 + 파트타임 사회복지사	담임목사 + 파트타임 사회복지사
대상	광범위한 복지대상자, 지역주민, 교회구성원	지역주민, 교회구성원	지역주민, 교회구성원	교회구성원, 지역주민	교회구성원
방법	사회복지법인 설립, 사회복지사업위탁,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사업위탁,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기관과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교육, 자원봉사 및 후원	사회복지 교육
재원	예산책정, 후원금, 공적자금 유입	예산책정, 후원금	예산책정	예산책정	특별헌금
예	사회복지시설(기관) 건립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소규모 센터 위탁운영, 급식사업 등	각종 상담사업, 동아리활동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활동	결연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등 연계활동 중심	사회복지 기초교육, 교육 수료후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

박창우(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수정·보완함.(윤성호, 2008 재인용)

이러한 모형에 따른 실천이 효과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며, 보완적으로 이러한 교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독립적인 교회의 역할보다 교회와 지역복지기관, 구청이나 동사무소, 기독교대학과의 연계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에 네트워크의 당위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 Ⅲ. 지역사회복지 민·관 네트워크

#### 1. 네트워크의 개념

네트워크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물질, 비물질 모두를 포함하여 망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 내지 양태 또는 그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관계를 맺는 구성원, 조직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과 조직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상호작용하는 활동으로 정리한다(홍현미라, 2001). 이렇듯 명사적 의미로서는 개개인 혹은 조직 간의 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또는 속성을 가리키며, 동사적 의미로서는 개개인 조직 간의 망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네트워킹이란 서로 연결된 상친 행위 과정을 나타낸다. 하버마스는 네트워크를 사람들의 행위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 전략적 행위, 상호행위로 분류한다(박현식, 2006 재인용). 사회적 의미의 네트워크는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즉 개인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혈연 지연과는 다른 인간결합의 전체로서 정의하며, 이는 상호작용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전광현, 2004) 네트워크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부분들 간의 창조적인 협력으로, 상호작용의 형태로 이해한다(이금진, 2003). 사회복지적 의미에서 네트워크는 연결의 형태이다.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협조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으로 보며(박현식, 2006 재인용),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간 협력으로 개념화한다(이현주, 1998). 또한 사회복지네트워크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 전달에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고 대상자의 의뢰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형성되는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망을 말한다. 네트워크 활동이란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으로 개념을 정의한다(박현식, 2006 재인용). 따라서 사회복지 네트워크는 두 개 이상의 다른 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으로 기관 간 의뢰, 정보교류, 공동사업추진, 재정 공유 등의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기관사이의 참여 정도와 책임수준, 협력내용이 달라진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동을 비공식적인 관계(Informal relation), 조정(Coordination), 협조(Partnership), 협력(Collaboration), 통합(Integration)으로 설명한다(Streeter. C. K. & Gillespie. D. F. 1992 :201-222, 박현식, 200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의미를 사회적 의미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조정하며 협력 및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2. 네트워크의 전제조건

네트워크의 기본전제(양홍권, 2007)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목적에 합의 할 때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전개 될 수 있다. 네트워크가 비록 개별 기관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조성 목적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네트워크에 반드시 참여한다고 보장 할 수 없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 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등가성이 요청된다. 이는 네트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되는 자원이 동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있어서 어떤 특정 기관이 편중되게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면 투자비용이 많은 기관은 네트워크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더라도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 기관에 이익이 편중된다면 수혜가 적은 기관은 네트워크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다. 앞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에 투자한 자원이 많은 기관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산출되는 이익도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간의 헌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계에 있어서 공평한 자원 투자와 공정한 이익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네트워크 참여기관간의 신뢰형성이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신의 장점과 자원을 제공하고 번거로움과 희생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주체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신뢰관계는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의 조건은 지역사회 내 협력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교류와 협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 자원제공과, 협력과 헌신, 공동사업 추진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화되는 협력적 공동체 문화조성이 이루어 질 때 지역사회 내 인력양성 네트워크는 활성화 될 것이다.

### 3.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요인

네트워크 형성은 행위자 상호간의 필요한 자원을 주고받을 때 형성된다. 자원의 교환이 원활할 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원활하지 못할 때 네트워크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는 장애요인으로, 자원의 흐름을 차단하게 하고 지속적인 행위를 차단하게 한다. 자원의 의존 네트워크는 각각의 행위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상호교환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이룬다(정순돌, 1997). 그러나 한 쪽 행위자의 자원 결핍은 상호작용을 차단하게 되고 의존적으로 바라게 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관계로 종속되는 장애를 가지게 된다. 사회복지네트워크는 자원의 공급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원의 공급의 형태의 경우 자원의존 네트워크(Resource dependency network)'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Social support network)'가 실제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정순돌, 1997).

조직이건 개별 행위자이건 간에 다른 행위자가 소유한 자원 없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간 사회적 관계 즉,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형성된다(Klijin, 2001) 이때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에는 권력, 지위, 정당성, 지식, 정보, 자본 등을 의미하며(Klijin, Erik-Hans, Koppenjan, Joop, and Termeer, Katrien, 1995. 박현식 2006 재인용)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자원의 이동이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 상호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관계는 상호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원들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기보다는 비대칭적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상호 균형적이지 않다. 자원이 많은 행위자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위자에 비해 상대적인 힘을 갖게 되며, 자원이 적은 행위자일수록 자원이 많은 행위자에게 더 의존적이 된다. 즉, 자원의 결핍이 결국 다른 행위자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정순돌, 1997).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거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 체제라 정의한다(박현식, 2006 재인용).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될 때 네트워크는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네트워크는 장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애는 행위자간의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상호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상호 작용에서 일방적 관계로 전환된다. 네트워크의 상호 작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행위자간 목적, 규칙이 합의될 때 네트워크는 형성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는 일정한 절차,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못할 때, 즉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할 때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를 가지게 된다. 네트워크 형성의 장애는 네트워크 조직과 구축의 문제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 기능적인 영역의 사회적 지원은 인식적 내용을 강조한다. 사회 지원이란 개인들이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존

경받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인 조직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El-Bassel, N., Chen, Duan-Rung, and Copper, D. 1998).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보와 물질 및 감정의 교환, 이동 통로이며 사회적 지원은 필요할 때 감정적인 지지와 원조 및 자원을 제공해 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라고 정의한다(Snow & Gordon, Judith, 1980: 박현식 2006 재인용). 네트워크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자원의 결핍, 지속성, 상호신뢰, 네트워크 구성 내용으로 장애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애요인은 각 네트워크간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에 대한 대상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장애를 가진다. 자원의 공급, 지속성,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대상의 인식에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네트워크 조직의 전문성이다. 각각의 지원을 위한 조직의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장애를 가진다. 셋째, 행정적지원이다.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게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통로가 어떻게 구축되었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활성화의 요인이 된다. 넷째, 제도로 조직 간의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제도에 따라 그 형태는 달리 적용된다. 다섯째, 수급대상을 위한 방법이다. 사회복지의 수급대상을 자립, 재활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중요도를 가진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장애를 인식, 전문성, 행정, 제도, 방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선행연구

교회의 네트워크의 사례연구는 학술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경숙(1996)은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관, 보건소의 서비스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 네트워크 실태를 밝히려고 시도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네트워크 담당자 개인의 전문성, 영역간의 상호호혜성의 원칙이 중요하며 공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네트워크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한다고 보았다. 홍경준(2002) "전주지역 재활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조직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인맥이 네트워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금진(2003)은 "지역기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 기관 간 연계강화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연계경험과 연계실태와 정조 연계강화요인을 밝히며 연계강화요인으로 담당자 개인의 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연수경험이 있을 경우, 조직의 자원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게 연구되었다. 박미은(2002)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연결 실태 및 연결 관련 요인"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네트워크 방안 중에 하나로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였다. 이혜원 · 우수명(2005)은 "학교사회복지관련 조직간 네

트위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구축된 네트워크의 과정적,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최 옥채(2002)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연계망 만들기와 활동'에서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 과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공유체계의 요구로 연계망을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함철 호(2003)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관 간 연계의 효과성 평가"에서 지역복지협의체 연구에서 협의체의 상시운영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김인숙 · 우아영(2003)은 "부천시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에서 여성복지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의 구 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고 끼 리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희연 · 한인숙(2002)은 "네트워크 이론에 서 본 지역사회복지 연구"에서 지역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의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고 네트워크 특성을 근거로 사회복지관이 제공하는 복지 공급 의 형태를 평가하여 지역사회복지에의 기여정도를 평가 하였다. 김준기. 이민호(2006)는 "한 국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을 통해 사회복지 관의 네트워크 수준과 조직 효과성과의 관계를 연구 네트워크 거버넌스 효과성에 대해 경험 적 확인과 네트워크 관리자의 전략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의 요구를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네 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기관간의 연계의 실태와 관련한 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둘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담당자 의 인식, 전문성, 업무의 공식화를 주장하는 연구. 셋째, 기관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 로 체계적 접근이 연구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효과성 에 대한 업무 분담과 전략적 방안에 대한 연구로 분류 할 수 있다.



## IV. 지역교회의 사회사업과 네트워크 사례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교회의 연합사례인 교회연합운동 러브 영도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그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부산의 영도구는 부산 남단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섬이지만, 지역복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 1. 사례의 지역적 배경

영도는 부산 남단의 섬으로 지역구 내에서도 독특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지역의 동질감과 연대감을 가지기에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도는 지리적으로는 다가오는 태풍을 온 몸으로 막아 부산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에 가장 먼저 선교의 발길이 닿은 곳 중의 하나가 영도이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조선 사람들의 집집에 록펠러의 회사가 만든 석유통이 물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벌써 그 당시에 록펠러의 회사가 영도에 저유 탱크를 만들어 조선 사람들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영도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곳 중 하나이다. 전에는 시청 및 광복동 변화가와 가까워 여러 면으로 편리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영도의 상황은 매년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의 낮은 재정자립도, 지역의 이미지, 교육의 문제,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빈곤층의 증가 등의 현실적인 지역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사례지역인 부산의 영도구의 사회복지 여건변화 및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지속성장과 양극화 확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성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통합과 선진복지제도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영도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대체로 낮고 타지역과 양극화가 심하며 중산층 중심의 아파트 지역과 고지대 저소득층 중심의 지역 주민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고령화와 저출산 경향의 심화의 문제이다.

향후 5년간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부담의 증가와 경제 성장의 둔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어 국가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만혼 및 독신가구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급증, 출산 및 보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로 저출산 경향도 심각해지고 있어 관련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셋째, 개인중심의 가치관 확산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가 될 것이다. 지속적인 소득의 증대와 개인중심의 가치관 확산으로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가족 부양기능 약화 및 사회적 소외현상이 증가되며,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문제, 가족

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시민참여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다양화, 개별화된 복지프로그램의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사회복지의 분권화의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복지의 분권화가 강화되고 있고 참여정부 역시 지방분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성화된 복지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청된다. 복지분권화가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에게 보다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복지분권화는 재정력은 취약하나 복지수요는 많은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강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영도구지역복지계획, 2007).

## 2. 영도기독교연합회의 러브영도 프로젝트 사례

영도기독교 연합회의 러브영도 프로젝트 사례는 2008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에서 김운성(영도중앙교회 담임목사, 러브영도 운영위원장)목사님의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연합운동 - 러브영도프로젝트-”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사례발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사례발표문의 감동과 원래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 1) 영도구 교회의 상황

영도에는 약 60여 이상의 교회들이 있다. 그 중에는 부산에서 3번째로 오래된 교회도 있고, 기독교대학인 고신대학교와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영도구의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었고, 교세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부흥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도에도 소망의 빛이 있다. 그것은 약 20여 년 전에 태동된 영도기독교연합회이다. 영도기독교연합회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한 교회 연합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그 동안 영도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연합예배, 목사 장로 수련회 등의 간단한 행사를 함께 해왔고, 교회들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연합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정신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던 중 영도기독교연합회는 그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는데, 예를 들면, 매년 봄에 개최하는 연합부흥사경회, 일 년에 3~4차례 가지는 연합금요기도회 등이 있다. 영도의 복음화가 모든 교회들의 공동 과제를 인식하고 한국해양대학교 교정에서 연합전도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영도기독교연합회는 교단과 교파의 장벽을 허물고 목회자 간의 유대 강화, 교회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몰라보게 함양되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영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랑하는 것이 영도기독교연합회라고 할 정도로 영도기독교연합회는 하나님께서 영도에 내려주신 복이 아닐 수 없다(김운성, 2008).

## 2) 새로운 변화의 요구

2007년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백 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뜻 깊은 해였다. 1990년대부터 감지되던 교회의 침체가 여러 통계적 지표를 통해 뒷받침되어 부인하기 힘든 상황도 있었으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지탄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이런 어둠 속에서 부산 교계로서는 한 가닥 빛을 발견한 해라고 하겠다. 부산의 절반에 가까운 교회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BFGF집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여러 영적 각성을 위한 집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부산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희망의 땅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저조한 복음화율이 그렇고, 지역에 만연한 비기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 정서가 그러하며, 교회들의 낙후된 실상이 그러하다. 여러 집회가 많은 용기를 주었으나, 투자한 재정과 시간과 인적 자원에 비해 그 결과에 있어서 아쉬운 면이 많았다. 이에 부산을 효과적으로 복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영적 숙고가 더욱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 3) 영도기독교연합회의 러브 영도 프로젝트

### (1) 발의

2007년 영도기독교연합회 정기 총회 당시 러브 영도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영도의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을 모두가 공감하던 터였기에 러브 영도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결정되고 추진되게 되었다.

### (2) 러브 영도 프로젝트의 취지 -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는 길가이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 딱딱해진 땅이다. 그 위에는 씨를 뿌려도 흙 속에 묻힐 겨를도 없이 새들이 먹어버리게 된다. 현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 굳어진 마음 위에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서 뒤엎으면 어떨까? 씨 뿌리는 수고 이전에 밭을 가는 수고를 먼저 더 하면 어떨까?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 밭을 갈아엎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감동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감동이다.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열린다.

영도에 대략 1만 명의 장년 출석 교인이 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1년에 1만원의 금식 헌금을 한다면 1억원을 모을 수 있고, 그 1억은 330여명의 개안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부산의 장년 성도 30만 명이 1년에 1만원을 헌금한다면 30억을 모을 수 있고, 그것은 무려 1만 명의 개안 수술 비용이 된다. 이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부산 시민을 향한 감동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연합된 힘으로 이런 감동 프로젝트를 하지 못한 것일까?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것이 감동이라면, 그 가장 효과적 도구는 사랑일 것이다. 사랑의 호미와 쟁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 뒤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다.

### (3) 재정 계획

재정계획은 기본적으로 각 교회가 상징적으로 각 교회 경상예산에서 일부(50만원~100만원)를 헌금(2천만 원)하고, 각 교회 장년 성도들이 한 끼 금식 헌금으로 1년에 1만원을 헌금(5천만원), 후원 이사 30명을 모집하여 1인당 년 100만원을 후원(3천만 원), 행복한 가게 운영을 통하여 기본 운영경비 조달(4천만원), 바자회(10월 23-24일)를 통한 재정 조달, 기타 독지가 와 후원금 및 기업 후원금으로 기본 재정을 갖추었다. 위의 금액은 정확한 예결산은 아니며, 프로젝트의 전체 구상의 일부이다.

### (4) 추진경과

그간의 추진경과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2. 러브영도프로젝트 추진경과**

2007. 4. 26	정기총회에서 발의하고 결의
2007. 5.	준비위원회 구성(목사 8명)
2007. 11. 24.	실행 가능한 사역을 구상하고, 전국 투어를 통해 벤치 마킹을 하여 그 내용을 보고함, 조직 인선 /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
2007. 12. 03.	영도 지역 내 목회자와 장로님 초청 설명회
2007. 12. 14.	연합금요기도회 시간에 교우들에게 설명함(성광교회당)
2008. 03. 24.	러브 영도 센터 개소 예배 행복한 가게 운영 시작
2008. 06. 26.	러브 영도 후원의 밤
2008. 07. 15.	고신대학교와 푸드 뱅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고신대학교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고신대학교 총장께서 연합집회시에 참여하여 알림
2008. 07. 31.	영도 관내에 쌀 전달식을 가짐(1,100세대)
2008. 08. 09.	러브 영도 바자회 설명회
2008. 10. 23-24.	제 1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독거노인돕기를 위한 영도사랑 큰 바자회 영도크루즈터미널 광장에서 개최 고신대학교에서 1억원 상당의 푸드뱅크 차량지원 전달

**(5) 러브 영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

첫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주민들에게 베푼다.

둘째, 교회들의 연합을 통하여 함께 지역을 복음화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각 교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한다.

넷째, 사역 과정을 통하여 교우들이 기독교적 봉사와 복지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일정 부분 훈련되게 한다.

다섯째, 주민들로 하여금 교회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교회의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쌓여진 신뢰를 바탕으로 장차 교회 연합을 통하여 개인 교회가 할 수 없는 사역을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이상 러브영도 프로젝트의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영도구의 지역적인 배경에도 설명이 되었듯이 특히 지역복지계획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지역사회복지의 연계협력 기능 강화이다.

첫째, 구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삶의 질 최적화를 위해 각종 복지관련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며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진하며, 둘째,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연계협력기능을 강화하여 복지거버넌스체제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민간부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부족한 복지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적 고급화를 도모하며 차별화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며, 넷째,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의 복지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영도구 지역복지계획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으로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네트워크 강조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실무협의체의 활성화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예로 고신대학교 영도발전연구소의 용역과제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요청과 복지박람회를 통하여 영도지역의 복지기관들의 연계, 워크숍 등의 노력이 그 예라 하겠다. 하지만 사례지역의 민·관의 노력은 복지관련 기관과 관과의 연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루어지는 러브영도프로젝트와는 전체 실무적 차원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의 노력, 특히 복지관련 기관과 종교단체는 그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핵심에 기독교 대학인 고신대학의 역할이 중간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역복지적 차원에서 러브영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신대학교와 기독교연합의 관계, 영도구청과 기독교연합회의 관계, 사회복지기관과 기독교연합의 관계, 각각은 연계는 이루어지게 된 듯하나,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계,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관계를 정립하고, 민·관네트워크의 모델로 적용하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기독교연합이 포함되어 함께 이루어질 때 통합적 네트워크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계를 위하여 학교가 중간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그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하여 발전적 제언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V. 발전적 제언

네트워크의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개발하여 타 기관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가운데 진보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주체들(교회, 사회복지시설, 기독교대학, 공공기관, 언론)의 강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회는 영성의 부분에서 크게 기여가능하다. 기독교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일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제도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레질리언스의 관점들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영성의 강조만이 이 시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력과 필드가 있다. 섬김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 대학은 교육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사회복지 인재 육성을 한다. 기독교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 학생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시설에 취업을 하게 되고 시설의 입장에서도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만이 기독교 설립이념의 구현에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공공기관의 경우 공신력이 가장 큰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기독교 사회복지 서비스에 공신력을 더하게 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가 아닌 보다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효율적인 활용은 네트워크에 있어 대중화와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독교 사회복지가 토착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관,산,학에 언론까지 더해 질 때 효과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며, 이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복지기관, 학교, 관공서의 민, 관, 학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주도적인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단체와 민간 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석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별, 분야별, 세분화와 전문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공유가 되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관계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분과모임 활성화이다. 주민이나 민의 의견을 수렴한 아래로부터 복지가 필요하며, 모임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연합의 경우, 다양한 자원망들을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민간의 서비스 노하우와 정보

력으로 활용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공동의 이슈를 통한 행사나 이벤트의 유치는 민·관이 서로 개방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지역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정보의 네트워크이다. 공유된 자원의 정보와 이용의 활성화, 연계 사례를 모아 엮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관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방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정보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종교와 관과 학, 복지기관이 초월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참여 활성화가 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한정된 자원을 활용, 동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각각의 자원 정리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모티브로 지역에 맞는 주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운영자와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 대표 구성하여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 민, 시설이나 복지관의 투명성 정보공개와 이용자도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V. 맺으며

현대사회는 공존과 연계의 네트워크 사회로 개성 있는 주체가 더불어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회복지의 효율적인 서비스와 전문성 및 책무성,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주체자들 간의 교류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의 교류기회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협의회,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교류 증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정보공유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영도구의 기독교연합회에서의 지역복지 사업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지역복지 사업의 주체로 구청과 동사무소인 관, 지역사회복지 기관과 기독교연합회 민, 기독교대학의 학, 즉 민·관·학의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지역복지 증진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류관계의 장을 마련하여, 세상을 향한 기독교적 사명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춘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小考). 기독교학문연구소. Vol. 10 No.1 pp.11-12
- 구중희, 1999.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 선교”. 《우원사상논총》. 제7집. 강남대학교. pp.283-324.
- 김기원, 1998. 『기독교 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 김운성, 2008. “지역사회복지와 교회연합운동” - 러브영도프로젝트-.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역스포.
- 김은수, 2002.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선교 실태와 과제”.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Vol. 7. pp. 49.
- 김인숙·우아영, 2003. "부천시 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3 :179-207.
- 김준기·이민호, 2006.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 『행정논총』 44(1) 91-125.
- 김희연·한인숙, 2002. “네트워크 이론에서 본 지역사회복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 :99-122.
- 대한기독교서회, 1985. 「흠어지는 교회」 5판. Jan C. Hoekendijk, Die Zukunft der Kirche und die Kirche der Zukunft, Stuttgart, JBerlin 1964; J. C. Hoekendijk.
- 박경숙, 1996.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복지관, 보건소의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30 : 40-75.
- 박미은, 2002.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연결 실태 및 연계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1:63-91.
-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식, 2006. “사회복지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애요인 연구” - 탈북자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 25 No.0
- 부산광역시 영도구, 2007. 영도구 지역사회복지계획.
- 성규탁·김동배·은준관·박준서, 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vol.19. pp.247-296.
- 신현석, 2008. “기독교사회복지 패러다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역스포. pp.96-108.

- 양흥권, 2007.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인력개발연구』 9(1): 27-40.
- 오정수·류진석, 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윤성호, 2008.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자세”. 부산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pp.72
- 이금진, 2003. "지역기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간 연계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35-64.
- 이삼열, 1999.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한울, 17-21.
- 이현주, 1998.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우수명, 2005.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 :119-146.
- 임종운·임구원, 2003
- 전광현, 2004.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14집, 19-51.
- 정순돌, 1997. “사회사업에의 체계망 분석법 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4.
- 채옥채, 200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연계망 만들기와 활용" 2002년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 학술대회자료집 427-440.
- 최일섭·류진석, 199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 함철호, 2003.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관간 연계의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55:209-339
- 홍경준, 2002. "전주지역 자활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7-33.
- 홍현미라, 2001. "지역사회 네트워크", 「2001 사회복지시설, 기관, 실무자 교육 교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 El-Bassel, N., Chen, Duan-Rung. and Copper, D. 1998.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 Profiles among Women on Methadone. Social Service Review, 72(3).